

## 광주일보 후원 첫 '광주 진료소' 캄보디아 개설현장

# 캄 주정부, 무상 부지·비자 면제 약속

### 의료 소외 지역 찾아 5월께 입지 확정

#### 캄보디아=최권일기자

80년 5월의 아픔을 지닌 광주가 '킬링필드'라는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는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시 외신기자 클럽에서 캄보디아 주정부 관계자와 만나 광주진료소 개설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캄보디아측은 광주진료소 개설을 적극 요청하며, 광주시가 진료소를 신축할 경우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도로와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진료소를 찾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해 비자발급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캄보디아 스텐트렌스 주정부가 광주진료소 유치를 위해 토지 무상제공 등을 적극 제의했으나, 수도인 프놈펜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6~7시간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캄보디아 측은 프놈펜에서 반경 60km가량 떨어진 광봉참주 등 의료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부지

를 더 모색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측은 다시 협의를 거쳐 오는 5월께 광주진료소 개설 지역 및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진료소에는 현지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도 들어선다.

현지에서 광주진료소 개설을 돕고 있는 캄보디아대학 쌍남교수는 "캄보디아에는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자하는 곳이 너무 많다"며 "다만 프놈펜시는 병원과 진료소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 광주진료소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광주진료소는 가급적 꼭 필요로하는 지역에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시와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박인화·서정성 광주시의원과 이경률 광주시 인

권담당관, 박두진 인권평화교류담당, (사)희망나무 정승욱 대표, 캄보디아 측에서 스텐트렌스 주정부 토지국장, 쌍남 캄보디아 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동남아 국가에 '광주진료소'를 개설하는 이 사업은 이주여성 친정방문과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사)희망나무가 주관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하며, 광주시와 시의회·시의사회·민간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추진된다. /cki@kwangju.co.kr



광주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시 외신기자 클럽에서 캄보디아 주정부 관계자와 만나 '광주진료소' 개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캄보디아=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 광양제철소에 세계최대 고로 들어선다 6000㎡ 규모 6월부터 가동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양제철소는 18일 3800㎡의 제1고로가 수명이 다해 오는 6월 6000㎡ 규모의 새 고로를 설치,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적 6000㎡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현재는 용적 5800㎡의 중국 장수(江蘇)상 사강그룹의 고로가 세계 최대이며 일본의 2개 고로가 2, 3위, 포항제철 4고로와 광양제철 4고로가 각각 4위와 8위 규모다.

수명이 끝난 광양제철 1고로는 지난 1987년 첫 쇠물 제조에 들어가 25년 동안 총 7745만톤을 생산했다.

6000㎡의 제1고로가 가동에 들어가면 광양제철소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현재보다 58% 늘어난 565만톤으로 상향된다. 연간 56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셈이다. 1고로는 19일 작업 중단에 들어가 6000㎡급으로 탈바꿈한 뒤 오는 6월18일 화입식을 하고 쇠물 제조를 시작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제1고로가 가동되면 광양제철은 세계 철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며 "1고로는 수증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 전력 사용량 절감,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친환경 고로로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09

## 새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에 허태열

차당선인, 국정기획수석 유민봉·민정수석 곽상도·홍보수석 이남기 내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측근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국정기획수석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이날 비서실장을 내정함에 따라 북핵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등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김장수 국가안보실장-박홍렬 경호실장'의 3실장 체제가 완성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참모진인 비서실 인선을 통해 국정운영의 '진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유민봉 곽상도 이남기

자신의 의중에 정통한데다 인사위 원장까지 겸하는 중량감 있는 비서실장을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실무형 전문가 위주로 포진한 내각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또 이날 발표된 4명의 비서진은 모두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적으로는 총리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영남 인사로 중용, 영남이 여전히 우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허 실장 내정자는 부산, 곽 수석 내정자는 대구 출신이다. 유 수석 내정자는 대전, 이 수석 내정자는 호남(영암) 출신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정부·경제·미래 전략·외교안보·교육문화·고용복지

등 6개 수석의 명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검증이 마무리된 자리부터 먼저 인선이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증이 한층 강화돼 여전히 검증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속 인선 발표는 2~3일 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정수석을 먼저 발표한 것은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0명을 훌쩍 넘어가는 청와대 인선을 앞두고 검증과 신원조회 등을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5월 영암서 슈퍼카 '속도의 향연'

### 18일부터 이틀간 F1 경주장서 '슈퍼GT 대회'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정경한 슈퍼카들이 펼치는 속도의 향연이 오는 5월 전남 영암에서 펼쳐진다.

18일 전남도와 (주)슈퍼GT코리아에 따르면, F1(Formula 1)과 함께 세계 최대 슈퍼카 경주대회 중 하나인 슈퍼GT(Grand Touring car) 대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이틀간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슈퍼GT대회는 '2013 코리아 올스타(All Star)'전으로 진행되며, 18일엔 예선, 19일엔 결선이 치러진다.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시작된 슈퍼GT는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고성능 자동차

를 튜닝, 최고속도 시속 32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성능을 끌어올린 경주용 슈퍼카들의 경기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8회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으며, 각 경기마다 유럽과 일본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15개 업체가 내놓은 40대의 슈퍼카가 경쟁을 벌인다.

지금은 매 경기마다 5만명 이상씩 연간 40만명이 관람하는 아시아 최대의 모터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튜닝을 통해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괴물로 재탄생한 현대 제네시스 쿠페와 함께, 최명길 선수 등 세계적인 한국인 드라이버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HANBANG BIO | 一理**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미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